

# 『潮騒』에 關한 一考察\*

- 作品 속에 나타난 IMAGE 分析을 중심으로 -

張 晉 洙\*\*

## A Study of the literary ideas on SIOSAI

Jin - Soo Chang

〈 목 차 〉

I. 序 論	3. 작자의 사상적 Image
II. 本 論	4. 신의 기원에 대한 가호
1. 작품 내용의 Image 분석	III. 結 論
2. 암시적 상징성	참고문헌

### I. 序 論

三島由紀夫는 2차 전후파 작가로서, 그의 문학에 나타나는 성향은 고전주의로부터 애국주의(Nationalis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면 먼저 작가의 생을 간략하게 살펴 보기로 하자.

그는 1925 (大正 14년)년 1월에 東京市 四谷區 永住町 二番地에서 父 “平岡梓” 와 母 “委文重”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이름은 “公威”라고 하였다<sup>1)</sup>. 三島는 學習院 高等科 졸업 후 東京帝大 법학부 재학중 고등 문관 시험(1947년)에 합격하여 大藏省 事務官 銀行局 관리로 근무하다 문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23세 때 퇴직하고 作家로서 작품에 몰두했다<sup>2)</sup>.

그가 作家 활동을 할 때, 朝日新聞 출판국장의 추천으로 세계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 本稿는 漢陽日本學 第3輯(漢陽大日本學會 1995)에 掲載된 論文임.

\*\* 한국해양대학교 조교수 일본문학

1) 松本徹 編著, 三島由紀夫, 河出書房新社, 1990, p. 12.

2) 松本徹 編著, 前掲書, p. 62.

1951(昭和 26年)년 12월 24일 橫濱을 배로 출발 하여, 그 다음 해 1월과 2월에는 美國과 브라질에, 3월에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4월에 英國 런던과 지방도시에서 전원 풍경을 즐겼다. 또 Greece와 Italia에 도착하여 Greece Athene의 고대문명을 돌아 보았고, Athene Delphi에서의 “젊은이 像”과 “Apollo 신전”도 보았다. 그리고 Rome에서는 사진판에서만 보아왔던 Guide Reni의 “聖 Sebastian” 殉教圖 등을 본 후 그해 5월 8일에 귀국했다<sup>3)</sup>.

특히 그는 Delphi에서의 “젊은이 像”이나 “Venus 像”을 보고 강렬한 감명을 받았다. 그 후 三島는 Greece와 Rome의 고대문명의 영향으로 고전주의에 심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귀국 후 너무나 약한 체질이었던 그는 건강과 힘(力)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후 Body Building, 검도등을 하여 체력단련에 정성을 쏟았고, 운동후 그는 육체적인 건강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작품 『潮騒』에서 자기의 허약 체질에 대한 면을 보상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삽입시키고져 하였다.

또 그는 힘(力)에 대한 열망을 승화 시키기 위하여 작품 전반에 걸쳐서 주인공의 건강미와 자연미가 흘러 넘치는 작품을 쓰려고 하였다. 그래서 三島는 Greece 여행에서 돌아온 후 바다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나타내는 작품 『潮騒』를 쓰게 되었다. 그 후에 그는 많은 작품을 썼고, 1970(昭和 45年)년 割腹 自決을 할 때에는 미리 예고된 죽음처럼 그의 생을 마치게 되었다.

이번에는 三島由紀夫의 『潮騒』작품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보자.

本稿에서 다루고자 하는 『潮騒』는 바다(海)를 동경하는 내용으로 바다가 주무대 이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상적인 자연을 배경으로 하여 인물들이 묘사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新治와 여주인공 初江을 중심으로한 安夫와의 삼각 관계와 千代子와 남주인공 新治를 중심으로한 安夫와의 삼각 관계의 이중 구조를 이루고 있다.

『潮騒』의 내용은, 고대 Greece의 2세기경의 Longos의 작품으로써 牧歌的인 연애소설인 『Daphnis et Chloe』<sup>4)</sup>의 模寫<sup>5)</sup>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작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三島는 일본 문학 작품중 고전주의 경향을 가미해서 묘사한 작품 『潮騒』를 1954(昭和 29年)년 6월에 발표하게 되었다. 그가 이 작품을 쓸 즈음에는 자연주의와 고전주의 사상에 깊이 젖어 있었다. 예술적으로 나타내 보면 Greece풍의 신전이나 조각상, 그림등이 작가의 마음을 사로

3) 松本徹 編著, 前掲書, p. 89

4) 이 내용은 Greece의 목가적인 田園의 어느섬에서 牧羊者가 주운 少年 少女가 이웃하여 양을 기르며 살고 있었다. 목가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진 전원 생활 속에서 연정이라는 뜻조차 모르고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기 시작 하였으나 헤어졌다. 그 후 여러가지 파란과 모험을 극복하고 생전과 만나게 된다. Daphnis는 莊園主의 자식으로 Chloe는 大商人의 딸로서 경사스럽게 결혼 하게 된다는 고대 Greece의 연애 소설이다.

5) 『潮騒』의 플롯을 살펴보면 원작에서 목동을 어부로 바꾸었고 주인공을 新治와 初江으로 바꾸어서 등장시키고 있으며 또 伊勢灣의 실제의 섬 “新島”를 “歌島”로 지명을 바꾸었으며, 목가적인 전원을 자연에 휩싸인 바다로 배경을 교체하여서 묘사 하고 있다.

잡고 있었으며, 생활적으로 보면 건강미를 추구 하였다. 또한, 원시적인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그 자연에 알맞는 주인공의 육체적인 건강미와 그들의 깨끗하고 소박한 마음이 어우러져 자연주의 문학 작품의 성격을 표방 하였다. 그리고 그 자연주의를 독특한 Image로써 나타내고자 하였고, 또 고전주의를 현대와 조화 시키려고도 하였다. 筆者는 앞에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면을 살펴 하였다.

本稿는 작품 『潮騒』를 대상으로 하여 데-마에 나타난 Image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편의상 작품과 관련된 Image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작품에 나타난 전체적인 Image이고, 또 하나는 부분적으로 독특한 Image를 표출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건의 결과적인 내용을 미리 예시해 주는 Image를 분석해 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또, 작자 三島가 이 작품 속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Image를 중심으로 네가지로 대별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첫째, 작품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았을 때 작품 내용의 Image 분석 이고, 둘째는 암시적 상징성으로 문장 속에서 표출된 혹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건의 결과적인 내용을 미리 예시해 주는 Image를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작가 자신이 『潮騒』 작품 속에 삽입 시키고자 하는 작자의 사상적 Image를 분석 하였고, 넷째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초월적인 능력을 신이나 종교적인 관점에서 신의 기원에 대한 가호로 보고자 하는 作家의 사상적 Image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같이 筆者는 작품 속에 나타난 협의적인 문장의 Image와 특히 작자 자신이 광의적으로 나타내려는 작품 전체적인 플롯(Plot) 속의 Image를 분석하여 考察하여 보고자 하였다.

本稿는 日本文學全集 68, 『潮騒』(三島由紀夫集, 新潮社, 1965.)를 參考 하였고, 또 新潮社(編), 三島由紀夫 全集3을 비롯하여 그 外 많은 參考 文獻을 발췌하여 연구 하였음을 아울러 밝혀 둔다.

## Ⅱ. 本 論

### 1. 作品 內容의 Image 分析

#### 1) 바다는 힘의 원천

작자는 바다가 힘의 원천임을 표출하기 위해 주인공 新治를 통하여 바다를 동경하게 하고, 또 “바다의 膳物”로써 ‘젊음의 表象’으로 나타내려 하였다. 신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체를 소유한 “聖 Sebastian”의 사상을 주입시켜 바다가 생의 근원이고 힘의 원천이라 생각하고 작품 속에 의도적으로 투사시켜 독자에게 표출하려고 하였다.

(1) 바다의 憧憬

三島の 작품은 대부분 바다의 문구가 들어가지 않는 작품이 없을 정도로 바다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 作品에서 작자는 바다를 新治의 憧憬의 대상으로 삼아서 힘의 원천이고, 만능을 가진 절대자처럼 생각하도록 하였다. 그는 자기 힘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다로 가서, 그 바다와 대화를 하였고 무언의 대화 속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였다.

用例를 들어 보자.

「待つ思ひに我慢がなくなると、ゴムの雨合羽を羽織って海に會いに行った。海だけが彼の無言の對話に答へてくれるやうな氣がしたのである。」<sup>6)</sup>

(기다리는 시간이 참을 수 없게끔 되면, 고무 비옷을 걸치고 바다를 보러 나갔다. 바다만이 그의 말없는 대화에 응해 줄듯 느껴졌던 것이다.)

「まっすぐ我家へかえるつもりだった若者の足は、自然と暮方の濱へ 向った。」<sup>7)</sup>

(곧장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던 젊은이의 발길은 자연히 황혼 무렵의 바닷가로 돌려졌다.)

또 여주인공 初江은 성격이 밝고 소박하며, 그녀를 쳐다보면 新治는 마음이 차분하게 안정되었다.

「その海を見ると、日々の親しい労働の活力が身内にあふれて来て、心が安まるのを覺えずにはゐられない。」<sup>8)</sup>

(그 바다를 보면 나날의 친근한 노동의 활력이 체내에 넘쳐흘러 마음이 차분히 가라 앉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新治는 바다를 바라보면 마음이 진정 되었고, 또 우연히 만난 初江을 보아도 마음이 안정된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しかし一生懸命に力んでゐるこの若者の黒いまじめな瞳は、初江に濱で自分をじっと見つめたあの若い顔を思ひ出させたらしかった。」<sup>9)</sup>

(그러나 잔뜩 힘주고 있는 이 젊은이의 진지한 점은 눈동자는 하쓰에에게 바닷가에서 자기를 꼼꼼히 바라본 저 젊은 얼굴을 생각해 내게 한것 같다.)

「手紙は若者に勇氣を與へた。彼は腕に力が充ち、體に生甲斐が漲るのを感じた。」<sup>10)</sup>

(初江의 편지는 젊은이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다. 그는 팔뚝에는 힘이 넘쳤고, 몸 전체에는 사는 보람이 용솨음쳐 끓어 오름을 느꼈다.)

즉, '바다를 상징하는 사나이' 가 '바다와 같은 여인'인 初江을 만나거나 그녀를 생각하면

6) 三島由紀夫, 日本文學全集68 (三島由紀夫集), 新潮社, 1965. p. 229.

7)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14.

8)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00.

9)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09.

10)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78.

힘이 넘치고 용기가 생겼다. 또 그녀에게서 힘과 용기가 솟아나는 바다와 똑같은 감정이 新治가 느끼는 바다의 생각과 일치 하였다. 그래서 新治는 바다를 憧憬하게 되었으며, '바다를 상징하는 사나이'로 등장 하였다. 바다를 憧憬한다는 것은 즉 初江을 憧憬한다는 Image도 포함 되고 있다.

『潮騒』 내용에서 주인공 新治는 '바다를 상징하는 사나이'로 등장 하고, 여주인공 初江은 주인공 新治가 느끼는 바다와 여러가지 면에서 一致點을 가진 인물로서 묘사하고 있다. '바다를 상징하는 사나이'인 新治는 바다가 강하고 힘의 원천이며 만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의 꿈을 이룩하게 해줄 것으로 믿었고, 그래서 그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思考하고 있는 중에는 항상 바다를 憧憬하게 되었으며, 바다와 상의하러 갔다. 또 新治가 바다를 동경한다는 것은 바다와 같은 初江을 생각하여 힘과 용기가 용솟음쳐 끓어오름을 느끼게끔 한다는 Image가 포함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 (2) 젊음의 表象

三島는 소설『Daphnis et Chloe』의 목가적인 초원을 배경으로 자연과 벗하는 이 작품 주인공들의 건강미를 지극히 마음속으로 찬양 하였다. 三島는 Greece를 방문한 이후, Greece 고전주의에 심취해 있을 때 었다. 그의 작품『潮騒』에서 그는 주인공 新治를 건강하고 힘이 있는 조각상처럼 표현하려 하였는데, 특히『潮騒』에 등장한 인물중 Protagonist인 "新治"와 "初江"을 강력한 힘을 가진 청순하고 소박하며 건강미를 지닌 인물로서 '젊음의 表象'으로 등장 시켰다. 이에 반해 Antagonist인 "安夫"와 "千代子"의 形象은 약하고 영리하고 이기적이며, 교활하고 자신감이 결여된 것을 상대인 "新治"와 "初江"에게 반대 급부로서 묘사하여 젊음의 표상과는 잘 어울리지 않게 묘사하고 있다.

주인공 新治는 "바다의 膳物"로서 건강하고 강한 힘의 소유자이며, 젊음의 상징(Symbol)으로써 표현하고 있다. 그는 '바다를 상징하는 사나이'로서 바다의 은혜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 바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생각 하였다. 그래서 新治는 바다에서 보내준 '바다를 상징하는 사나이'로서 자신을 절대적인 인간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用例를 들면

「一昨年新制中學を出たばかりだから、まだ十八である。背丈は高く、體つきも立派で、顔立ちの稚なさだけがその年齢に適ってゐる。これ以上日焼けしやうのない肌と、この島の人たちの特色をなす形のよい鼻と、ひびわれた唇を持ってゐる。黒目がちな目はよく澄んでゐるが、それは海を職場とする者の海からの賜物で、決して知的な澄み方ではなかつた。」<sup>11)</sup>

(재작년에 중학을 갓 나왔으며 나이는 겨우 열여덟 이다. 키는 흰칠하게 크고 몸집도 훌륭하여 얼굴 생김의 어린티만이 그 나이에 어울릴 뿐이다. 그 이상 더 햇빛에 탈 수 없는 살빛과 이 섬 사람들의 특이한 생김새의 코와 갈라진 입술을 갖고 있었다. 시커먼 눈은 빛날만큼 또렷이 보였으나 그것은 바다를 직장으로 가진자의 바다로부터 받은 膳物로서 결코 知的인 맑음은 아니었다.)

11) 三島由紀夫, 前掲書, p. 196.

『潮騒』는 고대 Greece 작품 『Daphnis et Chloe』를 원본으로 하여 三島가 Greece 여행중 체험한 Delphi에서의 “젊은이 像”을 보고, 『潮騒』 작품속에서 주인공 新治를 탄생하게 만들었으며, 건강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Greece Delphi에서의 “젊은이 像”을 보고 三島는 감명을 받고 어떻게 작품속에 적용 할까하는 문제가 제기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三島는 세계 여행을 한 후, 그 체험을 기본으로 하여 3월부터 8월 사이에 약 반년 동안에 걸쳐서 실제의 섬 『新島』를 탐사하여 충분한 구상 속에서 ‘젊음의 像’인 新治를 탄생시켰다<sup>12)</sup>.

또한, 그는 바로 Delphi에서의 “젊은이 像”이 新治의 환상으로 비추어졌으며, 그 환상과 일치된 인물이 바로 주인공 新治였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그는 『潮騒』에서 “新治”와 “初江”이 ‘젊음의 表象’으로 발휘할 수 있는 무대인 바다를 배경으로 힘이 있는 건강한 젊음의 상징을 나타내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怖ろしい力が若者の腕にかかった。波を切らうとするその腕を、見えない棍棒のやうなものが打ち握ゑた。」<sup>13)</sup>

(놀라운 힘이 젊은이 팔에 와 닿았다. 파도를 헤치려는 그의 팔을 보이지 않는 나무 막대기 같은 것이 그의 팔을 낚다 후려쳤다.)

「快活さの本能が蘇り、衰へてゐた氣力が新たに湧いた。」<sup>14)</sup>

(쾌활한 본능이 다시 소생하고 힘든 작업으로 소모된 기력이 새로 솟아 났다.)

「彼はあの冒険を切り抜けたのが自分の力であることを知ってゐた。」<sup>15)</sup>

(그는 저 모험을 돌파한 것이 자기 힘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新治는 ‘젊음의 表象’으로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나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힘(力)밖에 없다는 점을 독자에게 깨닫게 해 주고자 하였다.

### (3) 生の 根源

三島由紀夫가 Rome에서 사진관에서만 자주 보아왔던 Guide Reni의 “聖 Sebastian”의 순교도 그림은 매우 신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체를 소유한 젊은 청년像 이었다. 이 像의 Image는 “聖 Sebastian”이 “바다의 사나이”이고 바다를 모태로 하여 태어났다고 하는 서양적인 바다 숭배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聖 Sebastian”은 ‘바다의 젊은이’였고, 그의 源泉이 바로 바다 였다.

그 바다는 바다의 요소를 육체 내부에 지니고 있는 “聖 Sebastian”을 지칭했다. 그리하여 그를 “바다의 사나이”로서 말하고 있으며, 바다를 자기의 ‘生の 源泉’으로 삼고 있었다. 그래

12) 松本徹 編著, 前掲書, p. 91.

13)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86.

14)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87.

15)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97.

서 이 점에서 작자는 “聖 Sebastian”의 아름다운 육체를 新治의 아름다운 육체와 동일시하려 하고 있다.

「彼が海から来たといふ確信を幾人かの娘は抱いてゐた。彼の胸には海の高鳴りが聞かれたために、彼の目には海べに生れそこを離れねばならなかった人の瞳の奥に、」<sup>16)</sup>

(그가 바다에서 왔다고 하는 확신을 몇사람의 여인들은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그의 가슴속에는 바다의 높은 파도 소리가 들려 왔기때문에 그의 눈에는 바닷가에 태어나서 그곳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의 눈동자 깊숙이,)

「手早く脱ぎ捨てたあとには、着物を着てゐるよりはずっと美しい若者の褌一本の裸體がそこに立ってゐた。」<sup>17)</sup>

(재빨리 벗어 던진 뒤에는 옷을 입었을 때 보다는 훨씬 아름다운 젊은이가 팬티만 걸친 나체가 거기서 있었다.)

위의 用例에서 작자는 아름다운 젊은이가 바로 신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체를 소유한 “聖 Sebastian 像”을 상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작자가 생각한 ‘바다를 상징하는 사나이’인 新治를 지칭하고 있다. 주인공 “新治”도 ‘바다를 상징하는 사나이’로서 바다가 “聖 Sebastian”의 원천이고 新治의 根源도 바다이므로 모두 생의 根源이 바다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작자는 ‘바다를 상징하는 사나이’인 新治는 바다가 자기의 ‘생의 根源’으로 삼고자 한다는 사상을 강하게 독자에게 주입시키려 하고 있다.

用例를 들면

「彼の聽く潮騒は、海の巨きな潮の流れが、彼の體内の若々しい血潮の流れと調べを合わせてゐるやうに思はれた。」<sup>18)</sup>

(그가 듣는 파도 소리는 급박한 바다위 조류가 그의 체내의 젊디 젊은 혈관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고 있듯이 느껴졌다.)

그래서 바닷물의 흐름과 주인공 新治의 체내 혈관속의 피의 흐름이 일치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바다가 新治의 ‘생의 根源’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愛情 우세론

新治와 安夫는 歌島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가장 친한 죽마고우 였다. 이 섬 안에서 가장 부유 하다고 할 수 있는 富田照吉가 딸 넷을 두었는데 딸 셋을 출가시키고 아들 松이 병으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혼자 외롭게 되었다. 그리하여 어렸을 때 志摩의 老崎라고 하는 곳에 사는 해녀에게 양녀로 보낸 막내딸 初江을 갑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된다.

16) 新潮社(編), 三島由紀夫 全集 3, 1977, p. 194.

17)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34.

18)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17.

여기서부터 이 소설은 작품 구성상 初江이라고 하는 소녀를 사이에 두고 애정의 삼각 관계가 형성 된다고 할 수 있다. 주인공 新治는 가장 친한 친구 安夫와 初江을 사이에 두고 갈등, 시기, 질투, 모험등 애정의 싸움을 벌인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新治는 강력한 힘과 건강하고 원초적인,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고 있다. 또 그는 성실하고 용감하며 깨끗한 심성을 가진 인물이다. 특히, 그는 소박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인물로 등장하여 初江에게 호감을 얻고 있다. 이에 반해서 安夫는 불성실하고 이기적이며, 조금 지적인 면을 가진 인물로서 서로 상대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安夫는 歌島에서는 비교적 가문이 좋고, 언별력이나 통솔력을 가진 인물로서, 初江家の 재산을 탐하는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初江의 마음을 끌지 못한다. 즉, 新治는 初江의 순수성을 좋아하고 있으며, 安夫는 初江이 지니고 있는 외적인 물질성을 추구 하고 있다.

먼저 우정에 대하여 살펴 보자.

「いよいよ汝と朋輩は二人きりや。島ではいろんなこともあったけど、これからは仲良うせよう。」「おお」<sup>19)</sup>

「이제 너하고 친구는 둘 뿐이구나. 섬에서는 여러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제부터 의좋게 지내자.」(웅!)

照吉의 배에 두사람이 같이 타고 가면서 安夫가 新治에게 하는 첫 마디의 말이다. 照吉선주의 가미가제(神風)호가 가랑비 속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배를 같이 탄 두 친구의 우정어린 대화이다. 또한, 이 부분은 심해상에서 어려운 처지의 인간 심리를 잘 표현해 주고 있으며, 친구 사이의 우정을 돈독히 해주고 있다.

이번에는 우정의 갈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ある日、初江の婿になるといふ自慢を安夫がもちだしたので、新治は彼にはめづうしい手のこんだ復讐をした。それでは初江の寫眞をもってゐるかと思つたのである。「ああ、もつとる」と即座に安夫は答へた。新治にははっきり嘘だとわかつた。彼の心は幸福に充たされた。」<sup>20)</sup>

(「어느날 初江의 남편이 된다는 자랑을 安夫가 끄집어 내자, 新治는 그로서는 좀 복잡하고도 진기한 복수를 했다. 즉, 그렇다면 初江의 사진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던 것이다.

「아, 있구말구」하고 즉석에서 安夫는 대답했다. 그러나 新治는 그것이 분명히 거짓말인 것을 알았다. 그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즉, 외롭고 초조하고 불안한 곳에서는 서로 돕는 우정을 나누지만 “初江”이라는 소녀를 사이에 두고서는 우정은 무력해 지고, 애정이 우세하게 된다는 우정의 허실함과 갈등을 표현해 주고 있다.

그런데 初江의 아버지인 照吉선주는 계약적으로 두 친구를 같은 배에 태우고 항해하는 가

19)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79.

20)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81.



운데 선원수업을 시키면서 “初江”의 배우자를 선택 하려고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照吉의 선박이 폭풍우 속에서 위협에 부딪치게 되었을 때, 新治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照吉의 선박을 구출 하려고 선박에 있는 와이어를 부표에 매어 놓는 모험에 성공 하였다, 그러한 용기와 능력은 初江의 아버지인 照吉에게 알려졌고, 선원 실습 경쟁에서 新治가 능력의 인정을 받게 되며, 初江과의 결혼 승락을 얻게된 동기가 되었다.

이와같이 “新治”는 “初江”이라는 소녀로 말미암아 安夫와의 友情을 저버리고 戀敵으로 변하게 되는데, 여기서 작자는 같은 고향에서 자란 죽마고우의 우정도 “初江”이라는 소녀에 대한 戀情 앞에서는 허실하고 무력하다는 愛情 우세론을 주장하고 있다. 愛情 우세론이 일본 사회에서는 인정되고 있음도 엿볼 수 있다.

### 3) 純粹한 사랑의 勝利

우선 『潮騒』의 플롯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자. 주인공 “新治”와 “初江”의 관계는 해변가에서 배를 끌어 올리는 곳에서 우연히 만남으로써 시작 되었다. 그 후 두사람은 觀的哨에서 길을 잃은 “初江”을 또 만나게 되었고, 또 다시 우연히 해변가에서 “新治”가 월급 봉투를 잃었는데 “初江”이 주워서 해변가에서 만나게 된다.

이처럼 3회에 걸친 우연한 만남과 등대장 집에서의 약속된 만남, 그리고 觀的哨에서의 만남은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였고 믿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두사람 사이에는 어려운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다.

用例를 들어 보면

「…… そのとき千代子は、初江と寄り添って、嵐の吸きつける石段を下りてくる新治の姿を見たのである。」<sup>21)</sup>

(…… 이 때 千代子は 初江과 나란히 서서 폭풍이 불어대는 돌층계를 내려오는 新治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등대장의 딸 千代子が 비오는 날, 新治와 初江이 함께 걷는 것을 목격한 후, 그 사실을 安夫에게 전하게 되고, 安夫가 섬마을 전체로 소문을 퍼뜨리게 된다. 나중에 이 소문을 목욕탕에서 우연히 初江 아버지가 듣게되고, 初江에게 외출을 삼가 하도록 강요한다. 그래서 두사람의 교제는 初江 부친의 방해로 말미암아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두 사람의 사이에는 인편의 편지 왕래로 더욱 더 신뢰하게 되고 깊은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初江 아버지인 照吉의 지혜로 新治와 安夫는 같은 배를 타고 선원 수업을 받으면서 경쟁을 하게 된다. 그후 千代子の 양심의 가책으로 그녀의 편지로 인하여 자기가 소문을 퍼뜨린 사실을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로 전하자 千代子の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千代子の 회개로 등대장 부인인 千代子の 어머니도 앞장서서 新治와 初江에게 사랑의 결실을 맺

21)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38.

도록 도와 준다. 前述한바와 같이 마침내 新治는 폭풍후 속에서 배를 구하는 대모험에 성공함으로써 선주인 初江의 아버지 照吉에게 신임을 받게 되고, 결국은 혼인 승락을 얻게 된다.

이와같이 두 사람의 관계는 미리 예정된 결합을 好事多魔라는 속담처럼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사랑이 성취된다는 LOVE STORY 이다. 이를 통해서 볼때 이 작품에 나타난 내용은 勸善懲惡, 즉 선하고 착하며 정의로운 사람이 승리 한다는 Image를 나타내고 있다.

## 2. 暗示的 象徴性

三島는 『潮騒』에서 특히, 작품의 문장속에 나타난 Image가 어떠한 상징물이나 언어 표현으로 暗示的 象徴性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다쳐올 미래를 미리 예시해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 1) 시운을 짐쳐주는 Image

작자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건의 결과적인 내용을 알려 주거나 시운을 미리 예시해 주고 짐쳐 주고 있는데, 不吉한 예감과 吉한 예감으로 나누어 Image를 분석하여 보자.

#### (1) 불길한 예감

「千代子は鷗が、鳥羽驛前のケーブル・カアの鐵塔よりも、もつと高く飛ぶ瞬間に、心の中で賭をしてゐた。」<sup>22)</sup>

(千代子は 갈매기가 도리하 역전의 케이블카 철탑보다도 더 높이 나는 순간에 마음속으로 내기를 걸고 있었다.)

이 문장에서 갈매기가 철탑을 저 높이 나는 순간에 어떠한 '불길한 예감'이 나타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歌島섬에 初江이라고 하는 美人이 나타나서 자기가 연모하는 新治에게 새로운 연인이 될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

「活字がただつづいてゐる。そのあひだを高く低くとびめぐる鳥の幻影が彼女の目をちかちかさせた。それは鷗だった。千代子は思った。島へかへるとき、鳥羽の鐵塔をこえる鷗に賭けた小さな占ひは、この出來事を意味してゐたのだ、と。」<sup>23)</sup>

(「활자만이 있었다. 그 활자 사이로 높게 혹은 낮게 날고 있는 새의 환영이 그녀 눈앞에 아른 거렸다. 그것은 갈매기 였다.」千代子は 생각 했다. 섬으로 돌아올 때 도리하의 철탑을 넘은 갈매기에 대고 내기를 건 조그마한 占은 바로 이사건을 가리킨 것이라고.)

이때의 “새의 환영” 즉, 갈매기가 날고 있다는 Image는 작품 속의 내용으로 보면 ‘戀人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즉 불길한 예감을 확인해 주고 있는 Image로 나타나고 있다. 또 여기서 “이 사건”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밀애를 발견하는 장면’을

22)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27.

23)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38.

말하고 있으며, "내기를 건 조그마한 占"은 자기와의 '연정이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2)吉한 예감

「その時二人の頭上を鳥影がかすめた。隼であった。新治はそれを吉兆だと考えた。」<sup>24)</sup>  
(이때 두 사람 머리 위로 새의 그림자가 스쳐갔다. 매였다. 新治는 그것을 吉兆라고 생각 했다.)

위의 用例는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매"라는 새를 길조로 매개하여 미리 예시해 주고 있다.

「新治が 昨夜デ-キ王子の古墳に詣でたことを初江が知ってる筈はない。このふしぎな感應に搏たれた新治は、初江の夢占の裏附を今夜かへってから、ゆっくり手紙に書かうと思ふのであった。」<sup>25)</sup>  
(新治가 어젯밤 데끼왕자의 고분에 갔다는 것을 初江이 알리 없다. 이 신기한 감응에 깊이 감명한 新治는 初江에게 오늘밤 돌아가서 자세히 편지에 쓰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위의 用例는 新治가 데끼왕자의 고분에 간 사실을 알리 없는데, 初江이 "고분에 관한 吉夢을 꾸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신의 告知로 두사람이 서로 각성하게 해서 깨닫게 하여 '인연을 맺게 해주려'는 Image를 나타내 주고 있다.

「舊盆の四五日の前に、古里の濱に大きな龜が上ったのである。」<sup>26)</sup>  
(구봉 사요일 전에 歌島 마을 바다에서 커다란 거북이 한마리가 올라온 것이다.)

"거북이가 잡힌것"은 좋은 일이 마을에 있을 것을 뜻하고 특히 新治와 初江에게 곧 '결혼 승낙'을 받게 되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Image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운을 점쳐주는 상징적 암시로써 작자는 새나 거북이를 등장 시키고 있다. 상징적 Image는 작자가 미리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상징적 Image로 작자가 의식적으로 그 사건의 시운에 대해 예시해 주고 있다.

2) 未知로 다가 오는 Image

「水平線上の夕雲の前を走る一艘の白い貨物船の影を、若者はふしぎな感動を以て見た。世界が今まで考へもしなかった大きなひろがりをも、そのかなたから追って来る。この未知の世界の印象は遠雷のやうに、速くとどろいて来てまた消えて去った。」<sup>27)</sup>

(수평선상의 저녁 구름 앞을 달리는 한척의 흰 화물선 그림자를 젊은이는 묘한 감동을 가지고 보았다. 세계가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한 커다란 넓이를 가지고 그쪽 너머로부터 다가 온다. 이 未知 세계의 인상은 멀리서 들려오는 우뢰와 같이 멀리서 들려왔다가 이내 곧 사라진다.)

三島는 "달리는 한척의 흰 화물선 그림자"를 '希望' 또는 '어려운 일이 성취 되는 일'의

24)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09.

25)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62.

26)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87.

27)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04.

Image로 묘사하고 있다. 또, 「未知」의 Image는 '幸福'을 뜻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에서 보면 “未知 세계의 인상은 먼 우리와 같이 멀리서 들려 왔다가 이내 사라진다.”는 것은 '앞으로의 험난한 풍파를 만날 것'을 예시하는 Image를 내포해 주고 있다.

「水平線上の夕雲の前を走る一艘の白い貨物船の影を、ふしぎな感動を以て見送ったことを思ひ出した。あれは「未知」であった。未知を遠くに見てゐたあひだ、彼の心には平和があったが、一度未知に乗組んで出帆すると、<sup>28)</sup>

(수평선 상의 저녁 놀 앞을 달리는 한 척의 흰 화물선 그림자를 묘한 감동으로 바라본 일을 생각해 냈다. 그것은 「未知」였다. 未知를 멀리 보고 있는 동안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런데 일단 미지에 올라 출발하면.)

「未知」의 Image는 '幸福'을 나타내는 말로서 곧 잡힐듯 하지만 그 未知는 그렇게 빨리 잡히지는 않고 최후에 잡히고 만다는 결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少くともその白い船は、未知の影を失った。しかし未知よりももっと心をそそるものが、晩夏の夕方、永く煙を引いて遠ざかる白い貨物船の形にはあった。若者は力の限り引いたあの命綱の重みを掌に思ひ返した。かつては遠くに眺めたあの「未知」に、たしかに一度、新治はその堅固な掌で觸ったのである。彼は沖の白い船に自分は觸ることもできると感じた。<sup>29)</sup>

(적어도 그 흰 배는 미지의 그림자를 상실했다. 그러나, 그 미지 보다도 훨씬 마음을 유혹하는 그 무엇이 저 길게 연기를 뿜고 멀어져 가는 흰 화물선 모습에 있었다. 新治는 힘껏 잡아당긴 저 생명줄의 중량을 손바닥에서 다시 회상 했다. 한때 멀리 바라만 보던 저 「未知」를 분명히 신지는 한번 그 견고한 손바닥으로 만져 보았던 것이다. 그는 지평선 위 흰 배에 자기는 언제든지 「未知」를 마음만 결정하면 잡을 수 있다고 느꼈다.)

위의 예들에서 新治는 언제든지 「未知」 즉 '행복'을 마음만 결정하면 잡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작자는 먼저 상징적 암시으로써의 Image를 독자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행복' 이나 '험난한 풍파를 만난다.'는 일이 일어나도록 전개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三島는 象徴的 暗示로써 여러가지 Image를 사용하여 '미래의 사건'을 예시해 주고 있다.

### 3) 사랑을 전달하는 Image

新治는 初江과 처음 만났을 때 사랑의 표시로 아름다운 “조개”를 선물함으로써 암시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려 하였고, 그 후 두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 新治는 初江에게 “조개”를 주는데, 작자는 이 조개를 '사랑의 Image'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用例를 들면

「彼の足許には小さな美しい挑色の貝が落ちてゐた。今の波が運んで来たものらしい。とりあげてみ

28)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67.

29)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88.

ると完全な形をしてをり、その繊細な薄い縁にはすこしも毀たれた跡がなかった。贈物にしようと思つて、若者はそれをかくしにしまった。<sup>30)</sup>

(그의 발 밑에는 조그마한 아름다운 조개가 굴러 있었다. 지금 그 파도에 실려 온것 같다.손에 집어보니 완전한 모양을 한 그 섬세한 얇은 번두리에는 조금도 흠집 난데가 없었다. 初江에게 주려고 新治는 그것을 주머니 속에 넣었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指は燐寸に觸れる前に、朝、濱でひろった貝殻にふれた。それをとりだして、窓の光りにかざすと、まだ潮に濡れてゐるかのように、挑色の貝殻はつややかに光った。若者は、満足して、またそれをかくしにしまった。」<sup>31)</sup>

(손가락은 성냥에 닿기전 아침에 바닷가에서 줏은 조개에 닿았다. 그 조개를 꺼내어 창빛에 비추어보니, 아직도 바닷물에 젖어 있는 듯했고 분홍빛 그 조개도 윤택 있게 빛났다. 新治는 만족한 미소를 띠고 다시 그것을 주머니 속에 간직했다.)

이처럼 조개는 新治가 初江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시였고 그것을 初江에게 주려고 잘 보관 하기도 하였다.

다시 用例를 들어 보면

「けふ濱で美え貝ひろて、汝にやろうと思つて、もつて來たぢえ。」<sup>32)</sup>

(오늘 바닷가에서 예쁜 조개를 주었어. 너에게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突然、初江が新治のはうを向いて笑ふと、袂から小さな桃いろの貝殻を出して、彼に示した。」<sup>33)</sup>

(갑자기 初江이 新治쪽을 돌아 보며 웃는 낯으로 소매에서 조그만 연분홍 조개 껍질을 내놓고 그에게 보였다.)

新治가 初江에게 준 “조개”는 ‘사랑을 표시하는 마스크트’였다. 그 사랑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두 사람의 결혼 승락을 받아 냈다. 그리고 사랑을 성취 하게된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사랑에 대한 승리의 표현으로 初江이 新治에게 받았던 그 마스크트인 조개를 다시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상징적 암시로서의 Image들은 三島の 독특한 소설 작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Image들, 즉 “매가 나는 것”은 ‘吉한 일이 일어 날 것’을 예시해 주고 있으며 “갈매기가 날아가는 것”은 ‘男女간의 접촉이 어렵게 될 것’을 暗示하였고, 「未知」는 두사람의 ‘만남’이나 또는 ‘幸福’을 뜻하고 있으며, “달리는 흰 화물선 그림자”는 ‘希望’ 또는 ‘어려운 일이 성취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 “未知 세계의 인상은 먼 우리와 같이 멀리서 들려 왔다가 이내 사라진다.”는 것은 ‘앞으로의 험난한 풍파를 만난다’는 Image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

30)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30.

31)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32.

32)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36.

33)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97.

의 "조개"는 '사랑의 표시'로써 新治가 初江을 위한 마스코트 역할을 해주고 있고, 初江이 新治에게 주는 마스코트는 初江 '자신의 사진'이 新治를 '보호해 주고 지켜주는 마스코트'의 Image를 내포 하고 있다.

### 3. 작자의 사상적 Image

작자는 이 작품 속에서의 작자의 사상적 Image를 삼입해서 독자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潮騒』의 내용속에 작자의 사상적 Image를 나타내려는 自然主義 사상과 古典主義 사상의 Image의 내용을 표출하여 분석 하고자 하였다.

#### 1) 自然主義 思想

前述한 바와 같이 실은 三島가 『潮騒』를 쓰기 전에 2회에 걸쳐 伊勢灣의 실재의 섬 "神島"를 직접 답사 하였다. 三島가 살펴본 섬의 조건이 자신의 작품 조건에 충분하였고, 또 그 섬은 작품속의 "歌島"에 알맞은 自然을 가진 천혜의 理想郷 이었다<sup>34)</sup>.

작품속의 자연주의 사상에 대해 論하기 전에 그러면 여기서 自然主義이란 무엇인가를 간단히 알아보자. 19C 후반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문예 사조이고 문학에서 인생의 현실을 이상화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묘사 한다는 주의로서 철학에서 自然을 오직 하나의 實在로 보고, 모든 현상을 자연과학의 방법으로 설명하려는 주의를 말한다.

「都會の影響を少しも受けてゐず、風光明媚で、經濟的にもやや富裕な漁村と」 いうのが……」<sup>35)</sup>  
 (도회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않고, 風光明媚로, 경제적으로도 약간 부유한 어촌 이라고 하는 점이……)  
 ) 작자가 新島를 선택한 이유였다.

다른 用例를 들어 보면

「しかるにこの島では、島の人たちはあげて自然の味方をし、自然の肩をもつのであった。」<sup>36)</sup>  
 (그런데 이 섬에서는 섬사람들이 모두 자연쪽 편을 들고 있는 것이었다.)

위의 例文에서 보면 섬 주민도 자연과 일체가 되어 자연을 지키는 파수꾼 이었다. 그 섬 사람들은 자연을 지키는데 공지를 지닌 自然主義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이 곳에서 자연을 지킨다는 점은 섬과 바다를 지킨다는 것과 상통하고 있다. 그러면 주인공 "新治"와 "歌島" 섬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おれはいつか、動らいて貯めた金で機帆船買うて、弟と二人で、…… そいでお母さんに樂をさせてやり、年をとったらおれも島にかへって、樂をするんや。どこを航海してゐても島のことを忘れず、島の景

34) 松本徹 編著, 前掲書, p. 91.

35) 松本徹 編著, 前掲書, p. 91.

36)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38.

色が日本で一番美えやうに、(歌島の人はみんなさう信じてゐた。)<sup>37)</sup>

(난 언젠가 꼭 내가 번 돈으로 기법선 하나를 사서, 동생과 둘이서 ……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편히 해드리고 싶으면 나도 섬으로 돌아와 편히 쉴테야. 밖에서 배타고 돌아다녀도 이 섬만은 잊지않고, 이 섬의 풍치가 일본에서 제일 아름답도록! <歌島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믿고 있다.>)

‘바다를 상징하는 사나이’ 新治는 “歌島”를 몹시 사랑하고 있었다. 그가 “歌島”를 사랑한다는 뜻은 평생을 그 섬을 위하여 살고 싶어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바다는 自然에 속하고, 新治는 바다를 상징하고 있으므로 新治의 모습이 바로 신비한 힘을 가진 자연 그 자체이라고 할 수 있다.

用例를 들면

「若者は彼をとりまくこの豊饒な自然と、彼自身との無上の調和を感じた。彼の深く吸ふ息は、自然をつくりなす目に見えぬものの一部が、若者の體の深みにまで滲み入るやうに思はれ、……」<sup>38)</sup>

(新治는 그를 애워싼 이 풍요한 자연과 그 자신과의 이 이상 더 없는 조화를 느꼈다. 그가 깊이 들이쉬는 호흡은 자연을 창조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일부분이 자기의 깊숙이 스며들듯 느꼈으며)

新治는 풍요한 자연과 그 자신과의 사이에 특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또 자연과 인간의 만남을 미화하려 하고 있다.

「自然も亦、かれらに恩寵を垂れてゐた。昇りきって伊勢海をふりかへる。すると夜空は星に充たされ、……潮騒も烈しくはなかつた。海の健康な寢息のやうに規則正しく、寧らかにきこえた。」<sup>39)</sup>

(대자연도 역시 그들에게 은총을 내리고 있었다. 계단을 다 올라서서 伊勢바다를 돌아다 본다. 그러나 밤하늘은 별로 가득차고, …… 밀물 소리도 높지 않았다. 건강한 숨소리처럼 규칙적인 바닷소리는 평화롭게 들려 왔다.)

歌島 섬사람들은 자연에 대해 긍지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자연의 축복을 받고 있고, 前述한 바와 같이 주인공 新治는 바다를 상징하고 있으므로 新治의 모습이 바로 자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작자는 주인공 新治가 ‘바다를 상징하는 사나이’로써 자기 고향의 자연과 바다를 몹시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주의 사상을 일본인에게 알려 더욱 증폭시키려는 그의 사상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2) 古典主義 思想

三島는 古典主義 사상을 표출시켜 현대의 사상에 접목시켜 현대와 古代를 융화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내려고 하였다. 그는 Greece의 여행중 조각상이나 그림에서 표출되어 나타난 것처럼 외면성을 중요시 하고 균형적인 아름다운 육체미와 힘을 바탕으로 하는 古典主義 사상에 심취해 있었고, 『潮騒』 작품에서 그의 복고적인 古典主義 사상을 알리고져 하였다.

37)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22.

38)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17.

39)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94.

### 用例를 들면

「八代神社には六十六面の銅鏡の寶があった。八世紀頃の葡萄鏡もあれば、日本に十五六面しかない六朝時代の鏡のコピイもあった。鏡の裏面に彫られた鹿や栗鼠たちは、遠い昔、波斯の森のなかから、永い陸路や、八重の潮路をたどって、世界の半ばを旅して来て、今この島に、住みならへてゐるのであった。」<sup>40)</sup>

(八代神社에는 예순여섯면의 銅鏡 보물이 있는가 하면, 또 팔세기경의 葡萄鏡도 있으며 일본에 열 대 여섯개 밖에 없는 六朝 時代の 거울 모조품도 있다. 거울 뒷면에 새겨진 사슴이나 다람쥐들은 아득한 옛날 페르샤 숲속으로부터 긴긴 육로와 바닷길을 거쳐, 거의 지구의 반이나 되는 여행길 끝에 이 섬에 까지 와서는 고이 살아 오고 있는 것이다.)

동서양의 문화를 합일 시키려는 내용이며, 섬세한 아름다운 고대 서양문화를 想起시켜 현 대에서 숨쉬고 있는 古典문화를 복고 시키고자 하는 작자의 표현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 用例를 들어 보면

「頂きの七本の古松のあひだに、小さな島居と祠があった。デキ王子の傳説は模糊としてゐた。デキといふその奇妙な御名さへ何語とも知れなかった。六十歳以上の老人夫婦によって舊正月に行はれる古式の祭事には、ふしぎな箱をちらとあけて、中なる笏のやうなものを窺はせたが、その秘密の寶が王子とどういふ關りがあるのかわからなかった。……」<sup>41)</sup>

(맨 꼭대기에 서 있는 일곱 개의 고송 사이에 조그마한 島居 사당이 있었다. <데키 왕자>의 전설은 모호했다. 데키라는 그 기묘한 이름마저 뜻이 분명치 않았다. 六十세 이상의 노인 부부에 의해 음력 정월 이면 행해지는 옛날식 제사에는, 이상한 상자를 잠시 열어 그 속에 들어 있는 笏(笏)같은 것을 잠깐 보여 주었는데, 그 비밀의 보물이 왕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

###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면

「とまれ古い昔にどこかの遙かな國の王子が、黄金の船に乗ってこの島に流れついた。王子は島の娘を娶り、死んだのちは陵に埋められたのである。王子の生涯が何の口碑も残さず、附會され假託されがちなどんな悲劇的な物語もその王子に託されて語られなかったといふことは、たとへこの傳説が事實であつたにしろ、おそらく歌島での王子の生涯が、物語を生む餘地もないほどに幸福なものだったといふことを暗示する。多分デキ王子は、知られざる土地に天降った天使であつた。王子は地上の生涯を、世に知られることなく透つたが、追つても追つても幸福と天寵は彼の身を離れなかつた。そこでその屍は何の物語も残さずに、美しい古里の濱と八丈ヶ島を見下ろす陵に埋められたのである。」<sup>42)</sup>

(그건 어찌됐든 아주 오랜 옛날 어떤 먼 나라의 왕자가 황금 배를 타고 이 섬에 표착해 왔다. 왕자는 섬 처녀와 결혼하여 살다가 죽은 후 이곳에 파묻힌 것이었다.

왕자의 생애가 아무런 口碑도 남기지 않고, 또한 거짓과 억지로 꾸며내기 쉬운 어떤 비극적인 얘기도 그 왕자에겐 없다는 점, 이것은 설사 이 전설이 사실 이었다 하더라도, 추측컨대 歌島에서의 왕자의 생애가 얘기를 낳을 여지도 없을 만큼 행복 했다는 점을 암시한다.

아마 데키 왕자는 하늘로부터 미지의 땅에 내려온 천사임에 틀림없다. 왕자는 지상의 생애를 널리 알려지지 않은채 보냈지만, 그지없는 행복과 은총은 그의 몸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 그 시체는 아무 애

40) 三島由紀夫, 前掲書, p. 195.

41)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61.

42)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62.



기도 남기지 않은채 아름다운 古里 해안과 八丈섬을 내려다 보는 고분에 묻혀있던 것이다.)  
用例를 더 들어 보면

「初江は吉夢を見たのであった。神のお告げで、新治はデキ王子の身代りであることがわかり、めでたく初江と結婚して、珠のやうな子供が生れるといふ夢を見たのである。」<sup>43)</sup>  
(初江은 吉夢을 꾸었다는 것이다. 神의 告知로, 新治는 데끼 왕자의 변신이란게 알려져 축복 속에 初江과 결혼하여 옥동자를 낳았다는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현대와 고대를 융화 시키려는 방법으로 작자 三島는 꿈을 통하여 실현시키려고 하였다. 新治가 데끼 王子로 변신된 古典主義와 初江의 현대사상을 合一해서 잉태한 융합된 사상을 만드려는 그의 꿈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작자 三島는 銅鏡에 새겨진 사슴이나 다람쥐 같이 섬세하게 만든 조각품과 같은 보물과 왕자이면서도 섬치녀와 결혼하여 아주 평범하고 조용하게 一生을 행복하게 지낸 데끼 왕자와 같은 고대사상과 현대사상을 융화 시키고, 古典主義 思想을 표출하여 복고풍을 일으키고자 하는데 그의 목적이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 4. 神의 祈願에 대한 加護

인간은 항상 대자연과 천지창조의 무한한 우주의 힘 앞에서는 약하다. 그래서 언제나 불안과 위기의식 속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신의 가호를 받고 싶어하고,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능력을 신에게 발휘 해 주도록 기원을 한다.

八代神社는 歌島の 북서쪽을 향해 있는데, 歌島 사람들은 이 神社를 찾아서 신에게 기원을 하고 보호를 받고자 하였다.

用例를 들어 보면,

「八代神社は綿律見命を祀ってゐた。この海神の信仰は、漁夫たちの生活から自然に生れ、かれらはいつも海上の平穩を祈り、もし海難に遭って救はれれば、何よりも先に、ここの社に奉納金を捧げるのであった。」<sup>44)</sup>

(八代神社는 綿律見命을 모시고 있다. 이 海神에 관한 신앙은 어부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 그들은 언제나 바다의 평온을 빌며, 간혹 풍랑을 만나 살아 나오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神社에다 봉납금을 바치는 것이었다.)

이처럼 자연의 조화는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막아 낼수 없으며, 간혹 풍랑을 만나 살아 나오게 되면 그것은 신의 가호로 간주 하였든 것이다. 그리고 그 보답으로 神社에다 奉納金を 바쳤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用例를 들면

43)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62.

44) 三島由紀夫, 前掲書, p. 195.

「神様,どうか海が平穩で,漁獲はゆたかに,……何事をも熟知し何事にも熟達した優れた者になれますやうに! やさしい母とまだ幼ない弟の上を護ってくださいますやうに! 海女の季節には,海中の母の體を,どうかさまざまな危険からお護り下さいますやうに! …… されから筋ちがひの願ひのやうですが,いつかわたくしの やうな者にも,氣立てのよい,美しい花嫁が授かりますやうに! たとへば宮田照吉のところへかへって來た娘のやうな……」<sup>45)</sup>

(신이시여, 재발 바다가 평온하여 어획이 많고, …… 모든 일에 숙달한 우수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해녀의 계절에는 해중의 어머님 몸을, 아무쪼록 여러가지 위협에서 지켜주시기를 …… 그리고 이전 또 계통이 좀 다른 부탁입니다만, 언젠가 나 같은 자에게도 마음씨 곱고 아름다운 신부를 얻게 해 주십시오. …… 예를 들면 미야다데루기찌 댁에 돌아 온 그런 색씨같은……)

위의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新治는 자기자신의 소원을 신에게 기원 하였다. 즉, 어획이 많아 소득이 많아 지기를, 어머님과 동생의 안전을 신에게 기원 하고, 마지막으로 신부감으로 初江과 같은 처녀가 자기와 결혼 해 줄것을 기원 했던 것이다. 보통 人間이라면 누구나 이와 같은 기원을 신에게 하게 되리라 생각 된다.

또 다른 用例를 들면

「神の立ちどころの恩寵に,まだ感謝の祈りを捧げてゐなかつたことを思ひ出して,表へまはって,敬虔な祈りを捧げた。」<sup>46)</sup>

(神의 깊은 은총에, 아직 감사의 기도를 올리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닫고, 앞으로 돌아나와 경건한 기도를 올렸다.)

「きのふの夕闇の濱のできごとは,まるで彼らの意志から發したことなく,他動的な力がさせた思ひがけない偶發事といふ風に思はれた. あんなことがどうしてできたかふしぎである。」<sup>47)</sup>

(어제 저녁 어둠속에서 벌어진 일은 마치 그들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타동적인 힘이 그렇게 만든 우연한 일처럼 생각 되었다.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이상스러운 지경이다.)

위의 例들은 신의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깨닫고 있었으며, 그에게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우연한 일들 즉, 初江과 만나는 일이 신의 가호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더구나 그는 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신의 효험이 나타나고 있다고 믿기 시작 했다. 한편, 初江도 新治와 만날 수 없을 동안에는 新治의 안전을 신과 부처님에게 빌었다.

用例를 들면

「新治は母親と一緒に,航海の安全を祈るために,八代神社に參詣してお札をいただいた。」<sup>48)</sup>

(新治는 어머니와 함께 항해의 안전을 빌기위해 八代神社에 가서 부적을 받아 왔다.)

「私は毎日新治さんの體に怪我のないやうに,お母さんや兄さんの位牌に祈つてゐます. 佛さまはきっと私の氣持をわかつてくれてゐるのですものね。」<sup>49)</sup>

45)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07

46)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17.

47)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23.

48)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77.

49)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55.

(나는 매일 新治씨 몸에 아무일 없도록 어머니나 오빠 영전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반드시 저의 맘을 알아주고 계실테니까요.)

「これから毎日, 新治さんの無事を祈って, 八代神社におまゐりします。私の心は新治さんのものです。」<sup>50)</sup>

(이제부터 매일 新治씨가 무사하기만 빌며, 八代神社에 기도 드리겠어요. 나의 마음은 新治씨의 것이에요.)

이 내용은 新治가 安夫와 함께 선원 수업을 받기 위해 神風號를 타기로 예정 되자, 新治는 어머니와 함께 八代神社에 가서 부적을 받아와 항해중 안정을 빌었다. 그는 神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또한, 初江도 新治씨가 무사하기만 빌었다. 初江의 마음은 이미 新治에게 기울어져 있었고, 그의 안전을 신에게 빌었다.

위의 用例들은 初江이 新治에게 기원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그녀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신의 기원에 대한 가호로 여겼다.

用例를 들면

「神々はおねがひしたことを悉く叶へて下さった, と若者はまた心に幸福を呼びかへした。二人は永く祈った。そして一度も神々を疑はなかったことに, 神々の加護を感じた。」<sup>51)</sup>

(新治는 신이 자기의 청원을 모두 이루어 주었다고 마음속으로 감사했으며 행복함을 느꼈다. 두 사람은 오래동안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는 한번도 신들을 의심해 보지 않은 거기에 신들의 가호를 느꼈다.)

또한, 新治도 신이 자기의 청원을 모두 이루어 주었다고 마음속으로 감사했으며 신의 가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 행복해 했다.

用例를 들면

「神々の加護は一度でもかれらの身を離れたためしはなかったことを。つまり闇に包まれてゐるこの小さな島が, かれらの幸福を守り, かれらの戀を成就させてくれたといふことを。……」<sup>52)</sup>

(신의 가호는 한번도 그들의 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점을, 즉 어두움 속에 파묻힌 이 조그마한 섬이 그들의 행복을 지켜 주고 그들의 사랑을 이루어 주었다는 점을……)

또 三島는 『潮騒』에서 新治와 初江을 통하여 신이 있다고 믿도록 하고 있으며, 신은 순박하고 정의로운 사람에게 승리하게 해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순수한 사랑은 신의 기원에 대한 가호를 받게 되며, 승리를 이루게 해 준다는 점을 신에 대한 작자의 의도로 보고자 했다. 즉, 신의 가호를 받았던 新治는 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축복을 받는다는 그리스도교적인 救援과 맹자의 性善說의 사상처럼 반드시 선하고 올바른 사람이 결국은 신의 가호를 받게 된다는 점을 작자는 독자에게 알리려고 한 것이 작자의 사상적 Image라고 생각 할

50)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78.

51)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94.

52)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97.

수 있다.

### Ⅲ. 結 論

三島由紀夫의 작품 『潮騒』의 Image를 분석 고찰하고자 하였다. 작품 속에서 주인공 新治는 이 소설의 핵심적 배경으로 나온 바다를 憧憬하였고, 또한, 어려울 때나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바다와 상의하러 바닷가로 갔다. 바다는 여주인공 初江과 동일시하여 항상 곤란한 경우에 부딪혔을 때 바다를 생각한 것처럼 初江을 떠올렸다.

三島는 유럽에서 본 젊은이의 표상인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Delphi에서의 “젊은이 像”을 보고, 『Daphnis et Chloe』에서의 주인공처럼 新治와 初江의 건강미를 젊은이를 대표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 ‘바다의 사나이’인 “聖 Sebastian”의 건강미를 찬양하고 있으며, 이는 주인공 新治가 “聖 Sebastian”처럼 역시 힘이 있고 능력있는 ‘바다를 상징하는 사나이’로도 묘사하고 있다. 또, “聖 Sebastian”의 원천도 바다고 주인공 新治도 ‘바다를 상징하는 사나이’로서 묘사 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바다가 힘의 근원임을 나타내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三島由紀夫는 항상 병약한 마음을 보상 받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聖 Sebastian”의 건강미를 주인공 新治를 통하여 독자에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려 하고 있다.

애정 우세론에 대한 작자의 사상은, 애정과 우정에 관해 살펴 보면 연인들 사이에 있어서의 우정은 애정보다 약하고 허실하다는 愛情 우세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일본 사회에서는 愛情 우세론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작품 내용에서 보면 조건 없는 오직 순수한 사랑만이 승리 할 수 있다는 LOVE STORY 작품으로 사랑을 미끼로 어떠한 거래를 요구하는 사랑은 잘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과 오직 순수한 남녀 결합만이 이 세상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작자가 이 소설 속에 나타내고자한 진정한 남녀 사랑의 참뜻이 있다고 보고자 했다.

암시적 상징성에 대해 분석하여 보면 미래를 미리 예시해 주는 Image들 이다. 用例를 들면 “매가 날랐다”고 하는 것은 ‘길조’ 라든가, “달리는 한척의 흰 화물선 그림자”를 ‘희망’의 Image로 「미지」를 ‘행복’의 Image로 표현하고 있으며 “조개”를 ‘사랑의 마스크트’로 사랑을 전달하는 Image로 사용 하였다.

작품 속의 작자의 사상적 Image를 분석하여 보면 自然主義 사상은 문학에서 인생의 현실을 이상화 하지않고 있는 자연 그대로를 묘사해야 한다는 文學의 조류로써 이러한 사상을 작품 속에 용해 시키려 하고 있다. 三島는 『潮騒』에서 의도적으로 자연주의 사상을 삼입시켜 자연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섬사람들이 일체감을 가질수 있도록 승화시켜 자연주의 사상을

일본인에게 알려 증폭 시키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 볼 수 있다. 또한, 고전주의 사상을 삼입하여 고대와 현대를 융화 시키려는 의도가 작자의 사상적 Image로 나타내려 하였다. 신의 기원에 대한 가호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항상 신에게 기원하고 있으며, 주인공 新治는 神의 가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다. 千代子の 참회와 新治의 용기가 初江과의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신에게 기원 하였던 모든 것이 성취 되었다고 생각 하였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신의 가호를 받았던 新治는 복을 받는다는 그리스도교적 救援과 맹자의 성선설처럼 어떠한 나쁜 조건에서도 인간은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用例를 들면

「燈臺では、最上の御池走がお客様であった。人里離れたこの燈臺でも、はるばる彼のところまで訪ねて来るお客は、悪意をひそめて訪ねて来るはずはなかったし、また隔意なく珍客の扱ひをされてみると、誰の心からも悪意は消されるのであった。事實彼がしばしば云ふやうに、「悪意は善意ほど遠路を行くことはできない」のである」<sup>53)</sup>

(등대에서는 최상의 선물이 손님 이었다. 마을 멀리 떨어진 어느 등대나 일부러 먼길을 찾아오는 손님은 악의를 가지고 찾아 올리가 없고, 또 격의 없이 진객 대접을 받고 보면 누구의 마음이나 악의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사실 그가 가끔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악의는 선의만큼 먼 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인공 新治는 마음씨 착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선한 행동을 하여 행운이 따랐지만 악한 행동을 하면 벌(징계)을 받게 된다는 勸善懲惡에 대한 사상을 작자는 광의적으로 작품 속에 주입시켜 강조 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筆者는 이 論文 속에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과 같이 작품의 문장 속에 숨어 있는 Image를 협의적 또는 광의적으로 깊이 분석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53) 三島由紀夫, 前掲書, p. 218.

參考文獻

- 三島由紀夫：日本文學全集 68.(三島由紀夫集), 新潮社, 1965.
- 松本徹 編著：三島由紀夫, 河出書房新社, 1990.
- 北垣隆一：三島由紀夫の精神分析. 北澤圖書出版. 1982.
- 文藝讀本：三島由紀夫. 河出書房新社. 1979.
- 白川正芳 編：批評と研究 - 三島由紀夫. 芳賀書店. 1974.
- 三好行雄 編：日本近代文學必携, 學僧社, 1970.
- 三好行雄 編：三島由紀夫 必携, 學燈社. 1983.
- 齋藤順二：三島由紀夫とその周邊, 教育出版センター, 1984.
- 八木義徳：三島由紀夫論, (日本文學研究資料叢書, 三島由紀夫), 有精堂, 1979.
- 中島國彦：テルフィの若者・歌島の若者 (國文學 學燈社, 1987. 7.)
- 渡邊廣士：三島由紀夫 大江健三朗, (日本文學研究叢書 三島由紀夫, 有精堂, 1979.)
- 日本文學研究資料刊行會編：日本文學資料叢書 三島由紀夫, 有精堂, 1975.
- 朴尙均 譯：日本代表文學全集 6, 『潮騒』, 教育出版公社, 1981.
- 世界文藝大辭典(上), 成文閣, 1975.
- 新潮社(編)：三島由紀夫 全集 3, 1977.
- 三島由紀夫：三島由紀夫 27, 新潮社, 1977.
- 三島由紀夫：三島由紀夫 30, 新潮社, 1977.
- 三島由紀夫：三島由紀夫 31, 新潮社, 1977.
- 三島由紀夫：假面の告白, 新潮文庫, 1994.
- 三島由紀夫：潮騒, 新潮文庫, 1986.
- 三島由紀夫：愛の渴き, 新潮文庫, 1992.
- 三島由紀夫：金閣寺, 新潮文庫, 1989.
- 三島由紀夫：花ざかりの森・憂國, 新潮文庫, 1986.
- 遠藤嘉基外：日本文學史, 中央圖書, 1981.
- 尹致富：韓國海洋文學研究, 學文社, 1994.
- 박민수외：문학의 이해, 圖書出版 느티나무, 1994.